

마가복음 6-7
Tape #C2520
By Chuck Smith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에 계시며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인 나 사렛으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이 곳은 가버나움에서 약 84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좃으니라. 인식일이 되어 회당 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어찌될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6: 1-3)

배척하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이 넘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에 관해 인간적으로 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의 이들이라 하지 않고 마 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이미 요셉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일찍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은 서른 살까지 집에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목수는 헬라어로 “텍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능숙하게 해내는 숙련된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생소한 것도 무엇이든 척척 잘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작은 창고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큰 집을 짓는 일까지 예수님은 맡겨진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육신의 동생들이 자라 성년이 될 때까지 집에 머물러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육정으로만 아는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스칸달리조’라는 의미 그대로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넘어졌고,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돌, 즉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6 : 4)

여기에는 예수님이 자기 가족이나 다름없는 친척들에게서도 존경받지 못했음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았으나 고향 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 님을 단지 한 인간으로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 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6: 5-6)

단지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는 큰 일을 행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불신앙으로 사람들의 마음문이 닫혀 그분께 나아오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소수만이 고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6:7-11)

예수님은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의 강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눅 12 : 47-48) 라고 하시면서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나의 예언을 들었던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심 판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죄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성경구절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심판 은 주님의 공의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을 주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 상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하 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거부한 사람들보다 복 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더 관대하게 심판하시리라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걱정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먼저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실지 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거부했던 도시들은 심 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했던 말은 세 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6: 13)

야고보서 5 : 14 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 성경학자들의 여러 해석이 있지만,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5 장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믿으며 자신의 믿음을 드러 내는 접촉점을 찾았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 는 순간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느꼈고 예수님은 멈추어 서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접촉점을 찾았던 그 여인에게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은 히칠 수 있어. 병을 고치실 수 있을거야’라고 수동적으로만 생 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 하게 되었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름을 바르는 행위도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고 여겨집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서 기름 바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공동체가 모여 그들 기운에 있는 아픈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져 하나님의 치유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동 체를 통해 영광받으시는 것이지 몇몇 장로들이나 개인을 통해 영광받으시는 것 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데 쓰여질 수 없습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안수기도를 했더니 --- ”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듯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으나, 치유 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하되, 헤롯은듣고가로되 내가목베인 요한그가살아났다하더라.” (6: 14-16)

헤롯은 분명 세례 요한의 일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일의 배경을 알려면 먼저 헤롯에 관해 살펴 보아야 합니다. 헤롯의 족보는 아마 역 사상 가장 골치 이픈 족보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별을 보고 온 동방박사들이 예 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말한 후에 베들레헬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두 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도록 명한 자입니다. 편집광이었던 그는 항상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편집광이 된 것은 아마도 150 센티미터도 안되는 작은 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작은 키로 인한 열등감은 그로 하여금 점점 더 큰 야망을 갖게 하였고, 건물을 지을 때마다 엄청나게 큰 돌들로만 건물을 짓게 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예루살렘의 서쪽 벽이 바로 헤롯의 보성심리에 의한 부산물이었습니다. 이 벽은 신전이 있는 산을 둘러싼 거대한 옹벽이었습니다. 사해 서쪽 해안에 위치한 “마사다”(Masada)라고 불리는 큰 건축기념물도 헤롯 대왕 때 지어진 것입니다.

그는 첫 아내인 도리스와 이들을 버리고, 마리암네라는 여자와 재혼하여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 중 한 이들이 결혼해 낳은 딸, 즉 헤롯 대왕의 손녀가 헤로디아였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편집광이었던 헤롯은 자기 새 아내와 두 아들이 자기를 대적한다고 생각하여 모두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그 후 마리암네를 너무 나 그리워한 나머지 마리암네를 기념하는 탑을 여러 곳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헤롯의 폐지가 되는 편이 낫다는 속담이 생긴 것입니다.

이 일 후로 헤롯의 편집증세가 좀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또 마리암네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와 결혼하여 빌립을 낳았는데, 헤롯 빌립은 로마로 가서 상인이 됩니다. 헤롯 빌립은 자기의 조카가 되는 헤로디아와 결혼하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헤로디아는 살해된 자기의 배다른 형제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헤로디아는 빌립의 조카이자 아내가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또 다시 사마리아인인 말타스와 결혼하여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 하나가 헤롯 안티파스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아버지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갈릴리 지방 북쪽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로마로 가서 자기의 배다른 형제인 헤롯 빌립을 방문했는데, 그때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는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빌립의 아내이자 자기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진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를 유혹하여 빌립을 떠나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불의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결혼에 목소리를 높여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자기 부인이 된 헤로디아를 위해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세례 요한을 잡아 감금하였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습니다. 비록 그의 말대로 행하지는 않았으나 세례 요한에게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야심으로 가득 찬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 헤롯 안티파스를 부추겨 로마로 가서 황제로부터 왕의 칭호를 얻으려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그에 왕의 칭호를 주기는 커녕 도리어 그를 “골”(Gaul)이라는 곳으로 추방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헤롯 안티파스의 최후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그들의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는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했으며 그의 말을 달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생일을 맞아 여러 대신들과 천부장들, 그리고 갈릴리의 귀인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을 즐겁게 하자 헤롯은 딸에게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추었던 춤은 아주 관능적인 춤으로, 그 당시 창녀들이 추던 춤이었습니다. 이 춤은 정욕을 부추기려고 추는 춤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사람들, 특히 남자들 앞에서 자기 딸로 하여금 이런 춤을 추게 할 정도로 도덕 관념이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헤롯은 이 춤에 자극되어 딸에게 “무엇이든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구하는 살로메의 말에 왕은 심히 근심스러웠으나 자신이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즉 자기 체면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내뱉은 말로 인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상황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앞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 불법적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지냈습니다. 나중에 예수라는 인물이 온갖 이적을 행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헤롯은 ‘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고 생각할 정도로 계속되는 앙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에서 세례 요한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면 위로가

되었을지

도 모릅니다. 해룻은 자신이 범한 일이 잘못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6: 30-31)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어 사역하게 하시고, 복음전파의 일을 끝내고 돌아온 그들은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 그들이 행했고 가르쳤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행했던 많은 이적들,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들로 회개케 하고 복음을 전했던 일들에 관해 들은 예수님은 31 절에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분주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지어 잠시 앉아 먹을 시간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6: 32)

그들은 주위 사람들로 인해 항상 바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쳐있는 그들을 쉬게 하려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장소로 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걸어서 제자들보다 먼저 그 곳에 와 있었습니다 (6 : 33).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 끝에 위치한, 직경 약 10 킬로미터 정도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움직임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었고, 그들보다 먼저 그 곳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6: 34)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 하고도 남자만 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사려 없음에 대해 몹시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휴식을 취하려 이 곳에 온 줄도 모르고… 우리를 좀 내버려 둘 수 없나?’ 하며 귀찮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들을 귀찮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자신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결코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의 심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저녁 때가 되자 제자 들은 예수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곳은 빈 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 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6 : 35-36). 38 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42 절에 “다 배불리 먹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다소 게걸스럽게 먹어 과식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까지 먹었던 것입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오천 명이었더라.” (6: 43-44)

여기에 기록된 두 가지 이적은 주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 다시 말해 여자와 어린 아이를 모두 합하면 아마 만 명에서 만오천 명까지도 된직한 무리들을 먹이신 일과 열두 바구니나 되는 음식이 남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 너편 벧새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6: 45-46)

예수께서 바쁘게 사역하시는 가운데 잠시 쉬려고 무리로부터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그 곳에서도 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기다리 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그들을 섬기고 먹이시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정말 설 준비가 다 된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다른 곳으로 보내신 뒤 무엇을 하십니까? 46 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힘을 얻으십니다. 기도하는 동안 에 진정한 힘을 얻고 참다운 휴식을 취할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 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의 생활을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분이 하 나님과 기도로 교통하지 않고는 지낼 수 없다고 느꼈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 없이 매일의 삶을 살아갈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삶 속에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았다면 우리 삶은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힘썼다면 오늘날 세계는 지금보다는 달라졌으리라 믿습니다.

‘저물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리므로 ….’ (6: 47-48)

그 당시 갈릴리 호수는 그리 넓지 않았습니 다. 아마도 그날 밤에 보름달이 떴다면 달빛이 물 위로 반사되어 밝게 비추기 때문에 멀리서도 바다에 떠 있는 배 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닷바람이 거스리는 가운데 제자들이 괴로이 노 젓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명하신대로 배를 타고 건너다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다가 그들은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 무리를 가운데 어떤 이는 주님의 뜻을 따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행통하여 마치 장미꽃 만발한 평탄한 길로 가게 될 것 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 여기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보여줍니다 .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하사 바람을 맞으며 노를 저어 바다를 건너라고 하십니다 . 주님이 그 들을 이런 지경에 몰아넣으셨고 , 이미 지쳐 있던 그들은 더 힘든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여기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들의 태도는 본받을 만합니다 . 그들이 배를 돌려서 돌아가려고 했더라면 훨씬 더 수월했을지도 모릅니다 . 왜냐하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에 보이는 뱃새다의 불빛에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고 그 자리 에 머물러 있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그들을 보내신 분은 예수님 이시고 , 그들은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것입니다 . 우리는 그들의 순종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카려고 하시매 .” (6: 48)

밤 사경은 새벽 3 시부터 6 시까지의 시간대이므로 예수님은 좀더 일찍 그들에게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 제자들은 정말 힘들고도 어렵게 배를 저어가려 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 예수님은 참으로 유머가 풍부하신 분입니다 . 예수님은 물 위로 그들에게로 걸어가서는 정신없이 노를 젓고 있는 그들을 마치 못보신 체 그냥 지나치려 하셨던 것입니다 .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후에 그들은 곧 게네사렛에 이르렀습니다 . 사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 그들은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게네사렛으로 간 것입니다 .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 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 채로 메고 나아오니…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 (6: 54-56)

사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혈루증 앓던 여인의 병이 치유되자 사람들의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옷자 락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 이것은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집착점이었습니다 . 따라서 손을 대는 자는 모두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 (7: 1-2)

의식적인 씻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 이것은 위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모두 의식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 의식적이고 의례적인 씻음과 관련된 유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 후에 이 모든 규칙들과 관련된 것들이 “미쉬나” (Mishi-nah) 라는 유대의 법을 기록한 책에 모두 편집되어 있습니다 . 이것은 단순히 가서 씻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 의식에 따라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방법에 따라 씻어야만 했습니다 . 만일 어떤 사람의 손이 의식적인 차원에서 더럽다고 규정될 경우는 누군가가 부정한 손으로 만진 것을 그가 만진 경우입니다 . 만일 내가 이방인으로서 동전을 만졌는데 그 동전을 어떤 사람이 만지면 , 나는 이방인으로서 부정한 자이므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그렇다 면 시장 같은 곳에서 누가 어떤 동전을 만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집에 와서 음식을 먹기 위해 손을 씻을 때 위생을 위해 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 하나의 의식으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를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 그들의 규정대로라면 약 달걀 두 개 분량의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

첫번째 씻음은 맨 먼저 손을 앞으로 내밀고 한 손으로 물을 부을 동안 다른 한 손으로는 물 붓는 손을 씻습니다 . 손가락을 함께 씻고 손바닥 , 손등의 순서로 손 만 씻어야 합니다 . 이런 식으로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 누군가 가 그 사람을 만지게 되면 다시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씻는 데 사용 된 물도 이미 그 사람과 닿았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 그래서 손목 아래로 물이 떨어지도록 해야 했습니다 . 이 물이 그 사람 몸에 떨어지면 다시 부정하게 , 즉 의 식적인 차원에서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물이 몸에 떨어지면 다시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을 앞으로 쭉 내민 채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손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다시 물을 붓게 하여 그냥 흘러내리도록 해야 했습니다.

항아리에 파리가 앉았을 경우에는, 이 파리가 이방인의 어깨나 또 다른 부분에 앉았던 파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또 이 항아리를 씻기 위한 의식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파리가 그 항아리의 속에 들어가서 앉았다면 그 항아리를 깨뜨려버릴 것입니다. 그 조각에 묻은 기름조차 몸에 묻지 않을 정도로 잘게 부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철과 청동으로 만든 것들은 씻고 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면이 평평한 접시 같은 것들도 다시 사용 가능했으나 밀이 움푹 들어간 용기가 부정해졌을 때는 모두 깨뜨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규정들이 “미쉬나”라는 유대인들의 유전을 기록한 책에 쓰여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 사야가 너희 외 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 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7: 5-9)

얼마나 쉽게 인간의 유전이 계명이 되어 독단적으로 행해지는지 모릅니다. 단지 사람들이 만든 유전에 불과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사람이 자유로워지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사람의 유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유전에 의해 구속당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사람을 가장 강하게 묶는 것이 바로 사람의 유전입니다.

이러한 유전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이 유전들은 성경적인 기초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교도 가운데에서 발생했음을 발견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서 그 유전들을 행해 왔기 때문에 어느새 계명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흔히 「장난과 접대」의 전통으로 알려진 “할로윈축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축제가 오면 아이들은 마녀와 요괴 분장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누가 자녀들이 마녀나 요괴나 귀신처럼 분장하고 즐겁게 노는 것을 막겠습니까? 분장을 마친 아이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탕이나 과자들을 얻어냅니다. 문자 그대로 말하면 강탈해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느 집이나 가서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주지 않으면 창문에 비누칠을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는 모두 빼앗아 달아납니다. 어떤 아이들은 타이어에 바람을 빼놓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축제가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축제기간 동안에 행해지는 일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로 인한 위험스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삿속으로 레이저 칼이나 장난으로 독약을 만들며 이로 인해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아이들의 강탈 계획을 부추기고 지원해 줍니다. 이런 잘못된 전통이, 인간의 유전이 사람들 속에 얼마나 깊숙이 파고 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정죄하셨던 바리새인들의 행위들은 교회 안에서 행해 온 것으로, 이러한 행위들은 인간의 유전으로 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가르치는 많은 계명이 성경적 기초 없이 유전적인 기초만을 토대로 세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세례에 대해서도 이를 증명할 만한 단 한 개의 성경구절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을 전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식은 분명히 유전에 기초한 교리이지 하나님 의 말씀에 의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세례식도 단지 많은 유전들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도는도다.” (7: 8-9)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러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7: 10-12)

유대법에는 부모님을 저주하는사람을들로 처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유전을 악용하여 “고르반”이라 하면서 선물을 드린 후에는 원하는 대로 저주를 퍼부어도 돌로 처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 이것이 그들의 유전이었습니다 . 이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사실 부모를 부양하게 되어 있었으나 “고르반 ,” 즉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부모께 드릴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해 버리는 것 입니다 . 이미 모든 것을 주께 드렸으므로 부모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 이런 유전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부정해 버렸습니다 .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 (7: 13- 14)

주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시며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이제껏 해오신 수많은 개혁적 인 말씀 중에서도 가장 과격한 내용입니다 .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 그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부정하게 여겨 먹지 말아야 할 고기가 있었습니다 . 그 중 하나가 돼지고기였는데 ,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되어 먹을 수 없었습니다 . 그런데 시리아의 통치자인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부정하게 만들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사람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명령했는데 , 수 백 명의 유대인들이 이를 거부하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 마카비 혁명기 에도 수천 명이 돼지고기를 먹기보다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는지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무리를 다시 불러 말씀하십니다 .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 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 (7: 15-23)

돼지고기는 무엇이든 간에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이것은 그들의 유전과는 상반되는 말씀이었습니다 .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 먹는 음식은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 (7 : 19)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 즉 음식으로 인해 사람이 병이 들 수는 있으나 영적으로 더럽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 입니다 .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 영적으로 더러운지 청결한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 “마음이 청결 한 자는 복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 (마 5 :8) 먹는 것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사람의 더러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 겉속이 아니라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 어제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56 킬로미터 떨어진 두로 지경으로 가십니다 . 여기 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로 인해 쉴 수가 없으셨습니다 .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 구하거늘 ,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 (7: 25-27)

여기에 귀신 들린 딸로 인해 안타까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도움을 청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 그런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하여 예수님 은 “개”라고 까지 칭하십니다 . 그 당시에는 버려진 개들이 많았는데 , 사납고 더 러운 개들이 아이들까지 위협하자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는데 , 이것은 그 당시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 그러므로 이 말은 인격을 모독하고 손상시키는 의미였습니다 . 예수께서 그 여인 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매우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 그런데 “개”라는 뜻의 또 다른 헬라어가 있습니다 .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에서 언급된 개에 대한 의미와 다른 헬라어였습니다 .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집에서 기르는 애 완동물로 , 항상 식탁 아래에서 주인의 사랑을 받는 개였습니다 . 대부분의 유대 가정에는 강아지가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함께 지냅니다 .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말씀은 아이들의 빵을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다는 역설적인 의미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흠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 러기를 먹나이다.” (7: 28)

그 당시에는 식사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도구, 즉 손으로 먹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빵을 손으로 떼어 소스나 스프에 찍어 먹었습니다. 바로 빵이 수저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식사는 아랍식으로 주로 손을 사용하여 빵으로 음식을 찍어 먹곤 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쯤 되면 손에는 기름이 묻고 약간의 소스가 접시에 남게 되는데, 이때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이 랩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빵 조각으로 접시에 남아 있는 것들을 닦아 식탁 옆에 앉아 있는 강아지에게 던져 주는 것입니다. 이 빵에는 소스와 음식 찌꺼기들이 묻어 있어 강아지들이 주인이 주는 이 빵을 맛있게 먹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예수님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경멸스런 말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7: 31-35)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 먹은 사람의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매우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일정한 틀에 의해 움직여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만의 원칙대로 행합니다. 하나의 방법만을 고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정한 방법론(methodology)을 발전시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특정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형태로 일하시며 어떤 규정된 틀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법론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방법을 택하셔서 일하셨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의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 사람이 모두 서로 다른 형태와 방법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가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판에 박힌듯 규격화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알맞고 독특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항상 즐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규격화된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사역의 어떤 시점에 이르러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병고침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투산(Tucson)이라는 곳에서 사역할 때 부지런히 주님을 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환자를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부에서 천식이나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온화한 기후와 알맞은 습도로 인해 그 지역으로 요양차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늘 ‘병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주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시간에 종종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곤 했는데, 어느 날 저녁 데이빗맷프에서 가까운 크레이크로프트에서 가진 야외모임에 왼쪽 눈이 실명된 부인이 찾아와서는 치유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그 부인의 왼쪽 눈에 얹고 주께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자마자 손에 전혀 새로운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손을 떼 직후에 그 부인이 저를 보았을 때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인은 “보입니다. 보여요!” 하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돌아다니며 온 이웃에게 자기가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인의 한쪽 눈이 실명된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부인은 한쪽 눈을 가리고 글을 읽어서 자기가 보게 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 사실을 말로써 제대로

설명할 수 없지만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 부인은 여러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제게로 데리고 와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내가 어떻게 그 부인에게 했었는지를 기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환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지만 환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 다. 저는 이전에 기도했던 방식대로 다시 반복했으나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언제나 특정한 공식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식에 따라 일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로 일하 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틀에 규격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방법을 쓰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 하실수록 저 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병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7: 36-37)

예수님은 치유의 역사에 관해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고 경계하셨지만 그들은 더욱 널리 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왜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 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신 이적에 흥분되어 예수님을 메시야로서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는 잘못된 시도를 미리 막으시기 위함 이었습니다. 메시야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예정된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을 본 예수님의 어머니가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이르자 그분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때 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메시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주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 사이에는 그분을 세우려는 잘못된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큰 무리를 먹이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 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 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 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요 6 : 15)

“이 날은 여호와와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 다.”(시 118:24) 메시야가 나타나실 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사람들 이 주님의 계획보다 앞서 나아가려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 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을 때 우리들도 잠잠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36 절의 말 씀처럼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막으면 막을수록 그들은 더 널리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귀머거리 도 듣게 하고 병어리도 말하도록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 입니다.

8 장에서는 오천 명을 먹이신 이적과 비슷한 사천 명을 먹이신 일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믿 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께서 우리가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기도하는 일을 도와주시 기를 간구합니다. 기 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십시오. 보다 유익한 시간을 주님과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여러분 가까 이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새 힘과 사랑 속에서 성령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우리 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